



‘외투’ 급감 속 사업해제도… 출구 어디에

〈외국인 투자〉

도, 예레단지 이어 中 자본 ‘백통신원’ 지정해제 고시
부동산 수익 쟁기고도 실제 투자액 계획 절반 못미쳐
외국인투자 유치에 그림자… 올 상반기 실적도 ‘바닥’

외국인 투자실적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계획된 사업을 전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제주도의 투자유치 전략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자본 백통신원(주)제주리조트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역 외투 지정해제는 사업이 무산된 예레휴양형 주거단지에 이어 두번째다.

백통신원(주)는 2012년 11월29일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증산간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콘도 470실과 호텔 200실, 맥주박물관, 생태테마파크 등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조성하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득했다.

2013년 10월8일에는 2018년 8월까지 5년간 콘도 672실과 맥주박물관을 짓는 2065억원의 투자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31일 이행기간내 실제 투자액은 계획대비 44.5%인 919억원에 머물렀다. 백통신원은 콘도만 지어 분양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는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러 차례 사업기간 연장을 해지면서 콘도 외에 맥주박물관을 조성토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결국 사업자가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자 산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투자 이행기간 내 지정 기준 (전문휴양업)과 지정계획이 미충족’의 지정해제 사유를 고시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관련법 등에 따라 국제인 법인세 5년간 100% 및 이후 2년간 50%, 관세·개발소비세·부가가치세 5년간 100% 감

면 외에도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백통신원이 외투지역으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제와 지방세는 환수하게 된다.

한편 올 들어 상반기까지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 7400만달러, 도착 기준 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400만달러와 1억1400만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연도별 투자 유치 실적도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액 기준으로 2016년 10억100만달러, 2017년 10억89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3700만달러로 줄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본격 제주형 주민자치모델 나올까

의회 내부 대응모색 움직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감안한 특별자치 시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앞서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과 26일 국회 및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소관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주

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등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해 정 의원은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주민자치회’보다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향후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 과정의 모니터링과 함께 제주의 특별자치법 선도하는 제주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고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도내 시민단체와의 좌담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올 하반기에는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청년근로자 주거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수당)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이들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주택수당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이도1동 소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올해 첫 출하 ‘풋굴’ … “비타민C 충전하세요” 1일 서귀포시 중문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출하되는 풋굴 포장이 한창이다. 풋굴은 달 익은 감귤로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풍부해 향신료, 피부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찾는 손길이 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친환경 경영’ 속도 내는 개발공사

자원순환 활동 위한 협약
삼다수 ‘환경 인증’도 추진

제주개발공사가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

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지난달 31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회장 이승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개발공사가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사 및 제주의 자원순환 기반 조성 전략수립을 지원, 친환경 경영 및 자원순환 관련 연구와 정보교류, 자원순환경영 선도 사업 발굴 컨설팅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그간 진행해온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에 더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한층 효율적인 자원순환 활동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며 ‘친환경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는 먹는 샘물 시장의 리더로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제주삼다수 ‘환경 성적표’를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사진으로 알리는 ‘아름다운 서귀포’

제주컨벤션서 수상작 전시

서귀포시는 제8회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12월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시는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 공모전 수상작인 김은영씨의 ‘도리개질’을 포함해 총 43점으로 이뤄져 시작으로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시청 별관, 감귤박물관, 서귀포의료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서귀포시 서부도서관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이번 전시는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서귀포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서귀포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용숙 서귀포시 공보실장은 “오는 12월까지 예정돼 있는 전시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해 서귀포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를 원하는 기관이나 관공업체는 서귀포시 공보실로 문의(760-2033)하면 된다.

봉개초교~도련반석아파트
중단됐던 ‘도로 공사’ 재개

제주시는 공사 중단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 제주시 봉개초등학교~도련반석아파트간(삼봉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재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12월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해당 구간 길이

1.34km 폭 20m의 확장공사를 착공했으나, 지난 4월 원도급사의 회사 운영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제주시는 기존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설 준공처리하고 잔여 공사에 시공을 위한 업체선정을 완료, 지난달 23일 재착공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 공사 등도 병행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Corporation aggregate The Jeju Dialect Institute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는 설립 세 돌을 기념하여 방언학자인 **‘국립국어원 소강준 원장 초청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2019년 8월 5일(월요일) 오후 4시~6시

장소 한라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주제
국어의 방언 정책

■ 연사
소강준 국립국어원장(전주대학교 교수)

■ 문의
전화 (064) 722-2203

※ 강연 후에는 임시총회가 있을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참석도 당부 드립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강영봉

월세 타세요, 전세 타세요?

★나는 전세 car 탄다!★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임대 년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차신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살아주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월임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한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 세금 부담
☒ 정비 부담
☒ 보험 부담
☒ 주행거리 제한

☒ S보험사
☒ 정비 보증
☒ S정비업체
☒ 안전성
☒ 자금보증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임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방 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